"새끼 잃은 어미 새보다 슬픈 새가 어디 있으랴"

서길원 大記者

세상읽기

"올해는 '빼앗긴 목숨'들이 너무 많았다. 세밑에서 그들을 기억하며 슬픔을 눌러 밟는다. 엄동설한 어린 보리 싹 밟듯이 이 악물고 힘주어 밟는다. 덧없이 잊혀질지 모른다는, 내년에도 '빼앗긴 목숨'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우리는 다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다. 마지막 잎새처럼 남은 한 장의 달력이 처연하다. 처연함은 막연한 감정이나 감성이 아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겪어야 했던 참담한 현실의 자각이다.

여느 해라고 다르지 않겠지만 올해는 '빼앗긴 목숨'들이 너무 많았다. 세밑에서 그들을 기억하며 슬픔을 눌러 밟는다. 엄동설한 어린 보리 싹 밟듯이 이 악물고 힘주어 밟는다.

덧없이 잊혀질지 모른다는, 내년에도 '빼앗긴 목숨'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잊혀지면 그런 '빼앗긴 목숨'들이 2인칭이나 3인칭이 아닌 1인칭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날선 참회이기도 하다.

국가의 부재로, 물신의 탐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실존이 한순간 부재로 바뀐 한 해였다.

지난 12일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고등학생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함께 갔던 친구 2명을 참사로 잃고 힘 들어 하다 심리치료까지 받았으나 끝내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세상은 어쩌면 숫자놀음처럼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158명에서 159명으로 늘어났다고 기억할지 모른다.

하긴 이 어처구니없는 이태원 참사 앞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인공지능보다 더한 기계음으로 책임을 회피했음을 기억한다.

그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면서 "이건 축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하나의 현상'은 내일도, 모레도, 새해에도 얼마든지 이런 참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말에 다름아니다.

뒤늦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닥터카가 콜택시인가"라는 국민비난에 한몫을 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긴급 출동 차량을중간에 남편과 함께 탑승, 신 의원을 태우느라 '닥터카'가 참사 현장에 2~30분 정도 늦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직에서 물러설 뜻을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현행법 위반 여부, 당시 행적의 적절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태원 참사가 국가부재를 드러냈다면 이곳 남도의 광주 땅에서 연초에 발생한 비극은 물신의 탐욕이 빚은 참사였다.

새해의 설렘이 채 가시지도 않았던 1월11일 멀쩡하던 아파트 신축 현장이 붕괴돼 6명이 목숨을 잃었다.

모두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그러면서도 한 가정을 책임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아파트는 정작 자신의 부르터진 손발로 한 땀 한땀 짓지만 언감생심 자신이 지은 아파트에는 살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수사결과 아파트 신축과 관련 수억 원의 뒷돈과 뇌물이 오가고 여기에는 관련 대기업도 얽힌 것으로 드러났다.

비가 와도 사람들은 목숨을 빼앗겼다. 서울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고립돼 숨지고, 포항에서는 승용차를 빼내기 위해 물이 차기 시작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갔던 주민들이 한꺼번에 8명이나 숨졌다. 그중 아들과 함께 내려갔던 어머니는 아들을 가슴에 묻었다.

정부는 뒤늦게 '반지하 거주가구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반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파트 주차장 참변과 관련해서는 "신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차수벽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고 했다.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지만 이미 소는 잃어버린 뒤였고, 그렇다고 다시는 그러한 참변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보장도 없다.

재난 예방이나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원인이 아니라, 충분히 예견 가능함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이 참사의 원인이라는 것을 뼈저리 확인한 한 해였다.

지금 이순간에도 떨어지고, 넘어지고, 깔리고, 부딪히고, 끼여서 어디에선가 안타까운 목숨들이 세상을 떠나고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들자면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6만1822명이 각종 산업재해로 숨졌다. 하루 6명이 넘는 수치다. 지켜주지 못한 목숨들이다.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층이지만 목숨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장관 목숨이나 국회의원 목숨이나 재해로 숨져간 목숨이나 다를 바 없이 소중하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는 자식의 몸 냄새'라는데 그들을 보내고 남겨진 목숨들은 또 어찌 살겠는가. 새끼 잃은 어미 새보다 슬픈 새가 어디 있으며, 어미 잃은 새끼 새보다 가여운 새가 어디 있으랴.

한 해를 보내며 단 하나, 잊지 말자고 분노하는 이유다.

묵념하듯 그렇게 조용히 분노하며 한 해를 보낸다. 잘 가라, 2022 임인년이여.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이제는 의무다

김 진 우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차량 화재는 주행 중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위험할뿐더러 연료, 오일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만약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불이 번져 차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다.

소방청 통계(2021)에 의하면 하루에 평균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는데 이 중 절반가량은 7인승 미만의 승용차량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확대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인터넷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자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면 된다.

차량용 소화기 위치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운전자가 손에 닿는 위치, 승합차의 경우에는 운전석과 동승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뒷좌석이나 트렁크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차량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정해놓았다. 또한, 수시로 압력 등 외관을점검하는 게 좋다.

'화재 초기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이라는 말처럼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매우유용하다.

작은 실천만으로 자신의 차량은 물론이고 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지금 바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자.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화전

박 수 현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는 초기진화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화재가 쉽게 진압되는 경우는 없다.

쉽게 잡히지 않는 불길을 제압하려면 소방인력·소방장비·그리고 가장 중요한 풍부한 소방용수가 필요하다.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펌프차량에 싣고 있는 물만으로는 화재진압이 어렵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평상시 잘 눈에 띄지도 않을뿐더러 장애물 취급당하는 소화전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관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 걸림돌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소화전 앞에 어떤 사람은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어떤 이는 주차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주·정차 금지 장소인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이제 너무나 흔한 일상이 돼버렸다.

이런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는 5m이내에 정차 및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강력한 법적 규제보다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는 스스로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자동차를 주·정차 하기 전에, 현수막이나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주변에 소화전의 유무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도 피해를 볼 수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재난의 최종방어선인 소방관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소화전을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피고 지켜준다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제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처남도프린테크	(062) 943-014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한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 · 독자의견 •TEL : (062) 363-8800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충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동……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운……525-8994
두 암……266-1920
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정리……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3644-7272
나 주…010-3644-1309
담 양…010-3602-3550
곡 성…010-2632-4504
구 례…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4217-9480
강 진…010-3775-2369
장 성…010-3610-7824
무 안…010-9271-8517
여 수…010-8587-2288
함 평…010-3095-5842
영 암…010-4604-3742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